



## 불안초조 심한 남자, 고혈압 등 유발

불안초조 증세가 심한 남자는 그렇지 않은 남자에 비해 고혈압,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이 두배정도 높다는 연구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여자는 이러한 증세가 있어도 고혈압에 이르지 않으며 화가 나도 이를 참는 사람 역시 고혈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앨라배마대학의 제롬 마르코비치 박사는 미국의학회 회보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로 미루어 “중추신경계에 자극이 증가되면 혈관이 수축을 일으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르코비치 박사는 이 연구결과로 보면 불안과 근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고혈압의 위험이 남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르코비치 박사는 이것이 20년에 걸쳐 진행된 이른바 프래밍검 심장연구에서 나온 자료를 분석해서 얻은 결과라고 밝히고 프래밍검 심장연구가 1965~85년까지 진행되었던 만큼 이 분석결과 전부가 오늘의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자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여자의 경우는 불안초조와

고혈압이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사대상이 된 여자들은 대부분이 가정주부들이었다고 밝히고 최근에 나온 연구결과는 직업여성인 경우 직업남성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혈압의 위험이 월등히 높은 남자는 긴장, 불안, 불면, 소심, 문제가 점점 쌓여만 간다는 느낌을 지니고 있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마르코비치박사는 지적했다.

## 필리핀 HIV 감염자, 약 2만 5천명

필리핀의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유발 HIV(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감염자수는 최고 2만5천명인 것으로 컴퓨터 집계결과 밝혀졌다고 보건부의 에이즈감시실 관리들이 말했다.

이들 관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에이즈 예측담당국장을 지낸 제임스 친이 실시한 컴퓨터집계에 따르면 필리핀의 HIV보균자수는 2만명에서 최고 2만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밝혔다.

현재 美캘리포니아대학에서 활동 중인 친은 지난 주 마닐라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과거의 감염률에 근거하여 이같은 예상수치를 제시했다고 관리들은 말했다.

보건부 관리들은 자신들이 필리핀의 에이즈감염자수를 불과 4백36명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시인하고 보고되지 않는 에이즈 환자와 감염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4백36명 가운데 1백11명은 완전한 에이즈 환자로 발전되었고 72명은 사망했다. 지금까지 필리핀인들의 가장 흔한 에이즈 감염형태는 주로 매춘부들을 통한 이성간의 성접촉인 것으로 알려졌다.

## 25~44세 미국인 사망원인, 에이즈 수위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가 25~44세의 미국인 사망원인의 최대 요인으로 부상, 자동차충돌로 인한 사망자 발생률을 앞질렀다고 美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최근 밝혔다.

이 센터는 미국인의 사망원인을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 해만 해도 에이즈는 미국 성년의 사망원인들중 8위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살인이나 자살보다 앞서고 만성간장병보다는 약간 뒤쳐진 상태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인 전체의 사망원인들중 에이즈가 차지하는 비율은 1.5%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5~44세에 해당하는 미국 성년의 사망원인 중에서는 최대 빈도를 나타냈다고 이 센터는 전했다. 이 센터는 심장병과 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45~64세의 연령층에서도 에이즈가 사망원인의 7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92년 에이즈 발병 사망자는 3만3천5백90명을 기록, 지난 91년의 3만2백57명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으며 특히 92년 에이즈 사망자의 73%가 25~44세의 성인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청소년들의 에이즈 사망률은 지난해 16.2%를 차지했으나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19.9%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흑인들의 경우 에이즈는 전체 사망원인의 25.3%를 기록, 높은 에이즈 발병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美 정부 보건전문가들은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 콘돔사용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

